

소니코리아

IP 기반의 천장형 빔포밍 마이크 ‘MAS-A100’ 발표



천장형 빔포밍 마이크 MAS-A100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는 핸드프리(hands-free) 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강연 및 회의,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P 기반의 천장형 빔포밍(beamforming) 마이크 ‘MAS-A100’을 발표했다.

천장형 빔포밍 마이크 MAS-A100은 2개 이상의 마이크로 소리 신호의 위상차를 조절하여 원하는 소리를 보강하는 ‘빔포밍 기술’과 사람의 음성 대역 외의 주파수 음역을 상황에 따라 감쇄하는 ‘지능형 피드백 감쇄(Intelligent Feedback Reducer)’ 기능을 통합해 음성 증폭 및 녹음을 위한 선명한 오디오 품질을 제공한다. 듀얼 채널 출력으로 발표자 음성 증폭과 동시에, 참가자 음성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며, Dante 및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으로 설치와 관리가 간편해 교육 기관과 기업의 회의, 강연 및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니의 독자적인 오디오 처리 기술을 통한 음성 증폭으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지원

MAS-A100은 소니의 고성능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과 독자적 알고리즘으로 불필요한 피드백을 제거하고 음성만을 추출하는 지능형 피드백 감쇄 기능과 빔포밍 기술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를 들거나 장착하지 않아도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며,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 장비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오토 게인 컨트롤(Automatic Gain Control) 기능으로 발표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목소리 크기를 일정 볼륨으로 자동 조정해,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다.



저소음의 선명한 음질로 넓은 영역 녹음 지원

MAS-A100은 음성 증폭 및 녹음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각각의 전용 출력 채널을 갖춘 듀얼 채널 출력을 지원한다. 덕분에 발표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등 참가자 음성까지 폭넓은 범위의 오디오를 동시에 녹음 장치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에어컨, 프로젝터 팬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자동 소음 감소 기능이 탑재돼 강의 및 회의 녹음에 이상적이다.

Dante, PoE 및 강력한 기능을 통한 간단한 설치 및 관리

MAS-A100은 보다 손쉬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털 AoIP(Audio over IP) 네트워킹 표준인 Dante 지원으로 기존 AV 환경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PoE 기능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 케이블로 설치 및 전원 관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강의실 환경에 맞게 오디오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자동 보정(Automatic Calibration) 기능과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마이크를 중앙에서 설정 및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소니의 무료 소프트웨어 'Microphone Array System Manager(MASM-1)'도 탑재되어 있다.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관계자는 “소니의 새로운 빔포밍 마이크는 기존 마이크 설치 시 걸림돌이 되던 높은 비용과 낮은 음질, 복잡한 설치 프로세스 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더욱 깨끗하고 선명한 오디오 품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장 강의는 물론 원격 강의에서도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적극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IP 기반의 천장형 빔포밍 마이크 MAS-A100은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홈페이지(pro.sony/ko_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논

2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5' 및 RF 렌즈 9종 개발 발표



캐논이 EOS R의 뒤를 잇는 2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캐논은 새로운 EOS R5에 CMOS 이미지 센서, 이미지 처리 기술 등 캐논이 가진 최신 광학 기술력을 모두 집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논은 연내 총 9개의 새로운 RF 렌즈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EOS R5와 총 9종의 RF 렌즈 연내 출시를 통해 EOS R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캐논의 EOS R 시스템은 대구경 렌즈와 짧은 플랜지 초점거리, 카메라와 렌즈의 고속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렌즈 설계가 가능하며, 고화질 이미지를 구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영상 입력 시스템이다.

2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5'

캐논의 2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될 EOS R5는 더욱 향상된 스펙을 자랑한다. 캐논은 개발 단계에서의 주요 핵심 스펙 4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새롭게 개발된 CMOS 센서를 탑재해 전자식 셔터로 초당 최대 약 20매, 기계식 셔터로 초당 최대 약 12매의 진일보한 고속 연속 촬영을 지원한다. 향상된 고속 연속 촬영 성능을 기반으로 스포츠 경기 등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다.

EOS R5는 8K 초고해상도 영상 촬영을 지원하며, 8K 영상에서 고해상도 스틸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고, 8K 영상을 고해상도 4K 영상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 보다 다채로운 영상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EOS R5는 캐논 카메라 최초로 카메라 바디에 손떨림 방지 기능(IBIS, In-body Image Stabilizer)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IS(Image Stabilizer) 기능이 장착된 RF렌즈와 조합하면

흔들림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EOS R5는 듀얼 메모리카드 슬롯을 채용하고, 카메라 내의 이미지 파일을 캐논의 클라우드 플랫폼 image.canon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 발표된 캐논의 EOS R5와 RF 렌즈군은 대폭 향상된 성능과 함께 그동안 유저들이 원했던 기능들을 고루 갖췄다. 캐논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RP에 이어 고성능 모델인 EOS R5까지 연내 출시하며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F 렌즈 9종 연내 출시

캐논은 EOS R5와 함께 RF 렌즈 총 9종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 대표적인 3종을 선공개했다. RF100-500mm F4.5-7.1 L IS USM, Extender RF 1.4x, Extender RF 2x로 RF 렌즈군의 망원 라인업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RF100-500mm F4.5-7.1 L IS USM(좌측), Extender RF 1.4x(우측 상단), Extender RF 2x(우측 하단)



RF24-105mm F4-7.1 IS STM

한편, 캐논은 연내 출시될 9종의 RF 렌즈 중 첫 번째가 될 새로운 표준 줌 렌즈 RF24-105mm F4-7.1 IS STM의 자세한 스펙과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RF24-105mm F4-7.1 IS STM은 약 395g의 무게와 줌 수납 시 약 88.8mm 길이로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유저들이 기다려온 첫 번째 보급형 RF 표준 줌렌즈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RF24-105mm F4-7.1 IS STM은 오는 4월 중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이다.